아이돌 출신 연기자의 변신은 무죄!



‘아이돌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당당히 연기자로 자리매김한 크리스탈, 하니, 찬희, 김세정.(왼쪽부터) 이들은 파격적인 변신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전”을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 | OCN·카카오TV·KBS 2TV

예전의 ‘연기돌’이 아냐…파격을 즐긴다

크리스탈, 장교·대학생 임산부 변신
하니, 가출소녀 이어 단막극도 주연
찬희, B급코미디 영화 ‘썰’서 공시생
김세정 ‘경이로운 소문’ 시즌2도 참여

‘연기돌’이 달라졌다.

1020세대를 겨냥한 청춘로맨스 드라마를 주 무대 삼아온 이들이 최근 파격적인 변신에 잇따라 도전하고 있다. 소재와 장르,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색다른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연기의 스펙트럼과 활동 영역을 넓혀 연기자로서 입지를 새롭게 다지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드라마와 영화 제작진도 남다른 개성을 드러내는 아이돌 출신 연기자들을 과감히 캐스팅하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다.

●크리스탈·하니…파격의 아이콘

걸그룹 에프엑스 출신 크리스탈(정수정)과 EXID의 멤버 하니(안희연)의 존재감이 가장 두드러진다.

크리스탈은 지난해부터 신선한 소재를 내세운 드라마와 영화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OCN ‘써치’와 영화 ‘애비규환’으로 각각 카리스마 넘치는 특임대 장교와 친아버지를 찾는 대학생 임산부를 연기했다. 모두 아이돌 그룹 멤버로서는 선뜻 소화하기 힘든 캐릭터로 보이지만, “도전에 의미를 두고” 출연해 화제몰이에 성공했다.

이어 4일에는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 ‘새콤달콤’을 선보인다. 연기자 장기용·채수빈과 현실적인 20대의 연애를 그린다. 7월 방영을 목표로 제작 중인 KBS 2TV ‘경찰수업’에도 주연으로 나서 경찰대 신입생 역할을 연기한다.

2019년부터 연기에 집중해온 하니는 4월 개봉한 첫 주연 영화 ‘어른들은 몰라요’로 변화의 정점을 찍었다. 가출 청소년 역할을 맡아 거친 욕설은 물론 흡연 장면까지 소화하면서 파격적인 연기를 펼쳤다. 최근까지 웹드라마 ‘XX’, SF장르의 단막극 ‘SF8-하얀 까마귀’, 로맨스 드라마인 카카오TV ‘아직 낫 서른’ 등에서 주연으로 활약하며 연기자로서 대중과 접점을 늘리는 데 힘쓰고 있다.

●김세정부터 찬희까지…신작 러브콜

신진 아이돌 그룹 출신들도 빼놓을 수 없다. SF9 찬희와 구구단 출신 김세정이 기대주로 꼽힌다.

최근 KBS 2TV ‘이미테이션’으로 아이돌의 세계를 실감나게 그리고 있는 찬희는 3일 주연 영화 ‘썰’을 극장에 내걸었다. ‘B급 코미디’를 내세운 영화에서 돈 벌기 쉬운 아르바이트를 찾다 사건에 휘말리는 공시생 역할로 등장한다. 찬희는 “여러 활동을 병행하고 있지만 즐겁게 연기하고 있다”며 “다양한 작품을 통해 20대의 톡톡 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세정은 올해 1월 OCN ‘경이로운 소문’으로 액션 연기를 섭렵했다. 내년 방영 목표로 기획 중인 시즌2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올해 말 촬영을 시작하는 드라마 ‘오늘의 웹툰’의 주연 자리도 논의 중이다. 로맨스와 액션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한 경험이 돋보이는 덕분에 드라마 제작진의 잇단 섭외 러브콜을 받고 있다.

올해 영화 ‘최면’, 드라마 ‘학교기담’ 등 공포물에 잇따라 출연한 베리굿 조현, ‘라이브온’ ‘바람피면 죽는다’ ‘달리와 감자탕’ 등 세 편의 드라마에 나선 모모랜드 출신 연우도 각기 다른 개성을 발휘해 또 다른 ‘연기돌’의 이름값을 높이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방송가 흔든 ‘반중 정서’…중국풍 PPL에 시청자들 원성

‘간 떨어지는…’ 중국제품 장면 비난
‘빈센조’선 중국 비빔밥 논란에 사과

‘반중(反中) 정서’가 방송가를 뒤흔들고 있다

최근 중국풍 소품이 등장하거나 간접광고(PPL) 등 중국 자본이 투입된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 거부감이 커지면서 각 제작진이 관련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바쁘다.

5월26일 방송을 시작한 tvN ‘간 떨어지는 동거’는 중국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아이치이의 첫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라는 점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제작진은 “시청자 정서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중국 제품 PPL 장면을 모두 삭제했지만, 일부 시청자는 “중국 기업의 제작 지원은 여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코믹 요소 등으로 호평을 받은 드라마의 시청률이 1회 5.3%(이하 닐슨코리아)에서 2회 4.3%로 낮아진 현상도 관련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시선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앞서 tvN ‘빈센조’도 중국 비빔밥을 PPL로 등장시켰다 논란에 휩싸였다. 제작진은 곧바로 해당 장면을 지웠고, 주연 송중기도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중국 추리소설 ‘동트기 힘든 긴 밤’을 리메이크한 JTBC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동명의 중국 웹소설을 원작 삼은 ‘잠중록’ 등은 아예 방영 전부터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각 제작진은 주요 소재와 굵은 줄거리만 유지하고 내용을 전면 각색할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원동 한중콘텐츠연구소 대표는 2일 “세계 각국이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콘텐츠산업을 내세우면서 특히 대중문화 분야에서 양국 국민의 정서적 갈등이 폭발하는 양상”이라며 “중국을 포함한 해외 기업의 투자와 선(先)구매 등이 없이 제작비를 감당하기 힘든 제작사들은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공숙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도 “제작사와 제작진이 더 주의를 기울이고, 깊이 있는 역사적 이해를 토대로 콘텐츠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대중의 정서적 저항을 제작자들이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20대 젊은 관객 힘입은 ‘귀멸의 칼날’ 장기흥행

국내 누적관객 207만여명 동원



애니 ‘귀멸의 칼날:무한열차편’

1월27일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열차편’이 장기 흥행 중인 가운데 ‘n+1차’로 불리는 젊은 관객의 관람에 힘입어 또 한번 기세를 올릴 전망이다. 일본 언론도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열차편’(귀멸의 칼날)의 이 같은 한국 흥행에 관심을 드러내 눈길을 끈다.

2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귀멸의 칼날’은 1일 현재까지 누적 207만여명을 동원했다. 평일 평균 1500명, 주말 평균 5000여 관객을 불러 모으고 있는 작품은 20대(48.7%) 여성(54.1%)을 중심으로 30~50대 관객(이상 CJ CGV 예매 분포)까지 포괄하며 여전히 박스오피스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대 젊은 관객의 ‘n+1차’ 관람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 관련 단행본 등 ‘굿즈’를 얻기 위해 영화를 ‘n차’ 관람하고 있다. 이번 주말 메가박스 등 일부 멀티플렉스 극장은 2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하며 관객에게 ‘귀멸의 칼날’ 일러스트카드를 증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객수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일본 언론의 시선도 나온다. 일본 경제전문지 현대비즈니스는 최근호에서 ‘귀멸의 칼날’에 대한 한국 관객의 시선과 작품의 흥행 흐름을 보도했다. 현대비즈니스는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일본 애니메이션에 매료된 한국 성인 관객이 늘어났다”면서 “과거 일본 단행본 만화를 즐겨 읽던 세대가 이제 중년이 되었다”고 ‘귀멸의 칼날’의 한국 흥행 요인을 분석했다.

앞서 일본 아사히신문도 최근 애니메이션과 원작인 단행본 만화가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특히 한일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반일감정과는 별도로 일본문화 자체를 즐기는 젊은 세대의 일부 경향을 기사에 담아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한예슬 “남자친구 과거 행적 사실과 달라”



한예슬

연기자 한예슬이 연인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일부 매체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2일 한 온라인 매체는 한예슬의 연인 류모씨가 과거 불법 유흥업소에서 일했고, 그 과정에서 한예슬을 만났다고 썼다. 이에 대해 한예슬은 “사실이 아니다.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소속사로 알려진 높은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배우 본인의 사생활”임을 전제로 기사 내용을 부인했다. 소속사는 아직 전속계약 체결 전이라는 일각의 시선을 일축하고 연기자 보호에 나섰다.

김흥국 “뺑소니 혐의 억울…사건 확대됐다”



김흥국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흥국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흥국은 2일 ”나와 오토바이(운전자) 모두 신호위반이고 단순 접촉사고이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김흥국은 4월24일 오전 11시20분쯤 서울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오토바이와 추돌한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다. 경찰은 1일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 여러 차례 전화해 3500만원에 합의하지 않으면 뺑소니를 벗어날 수 없다”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SM엔터테인먼트, 코로나 백신 유급휴가 시행

연예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대표적인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SM)가 연예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급 휴가를 시행한다. SM은 2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부터 다음날까지 최대 2일을 백신 유급 휴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수 김윤아, 방송인 홍석천과 김나영 등 연예인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SNS에 올리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접종을 권유했다.

MBC, 드라마 제작중 성추행 의혹 연출자 해고

드라마 제작 도중 성추행 의혹을 받은 연출자가 해고됐다. MBC는 2일 드라마본부 소속 부장급 PD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고했다고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공지했다. A씨는 올해 상반기 방송하려던 드라마를 연출하던 도중 5월 초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현장에서 배제됐다. 이후 다른 연출자가 나서 드라마 촬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여년 동안 드라마 연출자로 일하며 인기 작품을 선보여온 부장급 PD이다. MBC는 A씨가 자신에 대한 해고 조치에 재심 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나홍진 감독 영화 ‘랑종’ 7월 개봉 확정



나홍진 감독

영화 ‘추격자’와 ‘곡성’의 나홍진 감독이 기획, 제작한 ‘랑종’이 7월 개봉한다. 2일 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나홍진 감독은 2016년 연출작 ‘곡성’ 이후 제작한 ‘랑종’을 선보인다. 나 감독은 ‘피막’으로 태국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한 반종 피산다나쿤 감독에게 ‘랑종’의 연출을 맡겼다. 이에 해외에서도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랑종’은 태국어로 무당을 뜻하며, 영화는 신내림이 대물림되는 가문에 얽힌 이야기다. 버라이어티는 “샤머니즘의 소름끼치는 매력이 영화를 통해 다뤄질 예정“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